

예 일 대 학

鄭 鍾 旭

(서울大 外交學科 副教授)

- ◇ 이 글은 編輯室의 요청에 따라 美 ◇
- ◇ 國 뉴 헤이븐 所在 예일大學에서 보 ◇
- ◇ 내 온 紹介資料를 참고로 同大學에 ◇
- ◇ 修學하여 政治學博士學位를 取得한 서 ◇
- ◇ 울大學校 鄭鍾旭教授가 써 주신 글입 ◇
- ◇ 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좋은 資料를 ◇
- ◇ 신속하게 보내 주신 A. Bartlett Giam- ◇
- ◇ atti 예일大學總長님께 깊은 謝意를 ◇
- ◇ 드립니다.〈編輯者 註〉 ◇

1. 概 要

◎ 名稱 : Yale University

◎ 位置 : New Haven, Connecticut

◎ 沿革 : 1701年 10月 9日 세이브르크大學으로 發足. 初代總長 아브라함·피어슨牧師. 1707年 最初의 卒業生(18名) 배출. 1716년에 세이브르크에서 現位置인 뉴 헤이븐으로 移轉. 1718年 에 엘리후 에일氏가 562파운드를 기증, 財團理事들이 學校名을 예일大學으로 改稱. 1861年 美國 最初의 哲學博士學位授與. 1892年에 博士過程에 女子 入學. 1847年에 大學院(graduate school) 設置. 1932年에 세펠드科學大學(예일

大學의 一部)를 改編하여 工科大學으로 改稱. 1973年 組織經營大學(院)의 設置로 12개 寄宿大學(residential college)과 1개 大學院 및 10개 職業大學院(法科大學, 醫科大學 및 經營大學 포함)을 包容하는 世界的 教育機關으로 發展.

◎ 學生 : 學部在學生 5,092명(1982年 統計). 大學院(職業大學院 包含) 약 5,000명. 學部學生 中 4學年 1,287명(男 806, 女 481), 3學年 1,286명(男 727, 女 559), 2學年 1,194명(男 670, 女 524), 1學年 1,325명(男 739, 女 586). 1982學年度 入學生 1,325명은 총지원자 10,937명(男 6,469, 女 4,468명) 중에서 선발(경쟁율 8:1). 82學年度 入學生 中 장학금지급 총액은 약 4백 9만달러. 外國人學生(82學年度 入學生 中)은 162명(그 중 韓國人學生은 3명, 日本人學生 5명, 中共 1명, 필리핀 2명, 대만 1명, 인도 4명).

◎ 學費(1982學年度 기준) : 수업료 8,190달러, 기숙사비 3,600달러, 잡비 1,060달러, 기타(여비포함) 500달러; 합계 13,350달러.

◎ 管理 : 18명의 理事가 合議制에 의해 大學運營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관장. 이들 理事

中에는 코네티컷州知事와 副知事が 當然職理事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同窓生 中에서 저명인사로 充員됨. 現 總長은 바트레트 지아마티박사로, 예일大學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78年 駐英大使로 임명된 킹만 부르스터박사의 후임으로 第15代 總長에 취임. 總長 밑에는 敎務學事行政을 책임지는 學僚長(provost)과 一般事務의 責任者(secretary), 그리고 財政問題 책임자로 財務官이 있음. 또한 大學의 시설투자를 담당하는 施設投資擔當官과 1975년부터 시작된 3억 5천만달러의 基金을 모으기 위한 「예일基金運動」의 本部長이 總長의 일을 보좌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사실상 副總長의 職位에 해당하는 大學 最高의 行政官吏들로서 약 9억달러에 이르는 大學基本動產(基金: endowments)을 관리. 現在 生存해 있는 同窓生數는 96,000여명.

◎ 敎育: 敎授 2,400명이며 그 중 10여명이 노벨 賞受賞者. 일반 직원은 6,000여명. 組織上으로는 總長 밑에 學僚長이 있어 敎育의 最高責任者로서 대학을 代表하고 그 밑에 예일칼리지(學部)와 大學院(graduate school)이 있으며 그 밖에도 職業大學院의 性格을 띠고 있는 10개의 大學院이 있음(의과대학원, 신학대학원, 법과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임업 및 환경대학원, 건축대학원, 간호대학원, 연극대학원, 조적 및 경영대학원). 중앙도서관인 스타링도서관을 비롯하여 캠퍼스의 各地에 흩어져 있는 44개 도서관(의과대학도서관, 자연과학도서관, 신학대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등)에는 7백 50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으며 크로스캠퍼스도서관(Cross-Campus Library)에는 매학기마다 코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참고서적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음. 또한 法科大學院과 大音樂堂 건물 사이에 있는 바이베켄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한 점의 유리도 없이 모두 대리석으로 단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原稿, 宗教改革의 主唱者 마틴 루터의 初稿 등 세계 각지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 모은 珍貴한 稀本들이 보관되어 있어 大學內의 觀光名所의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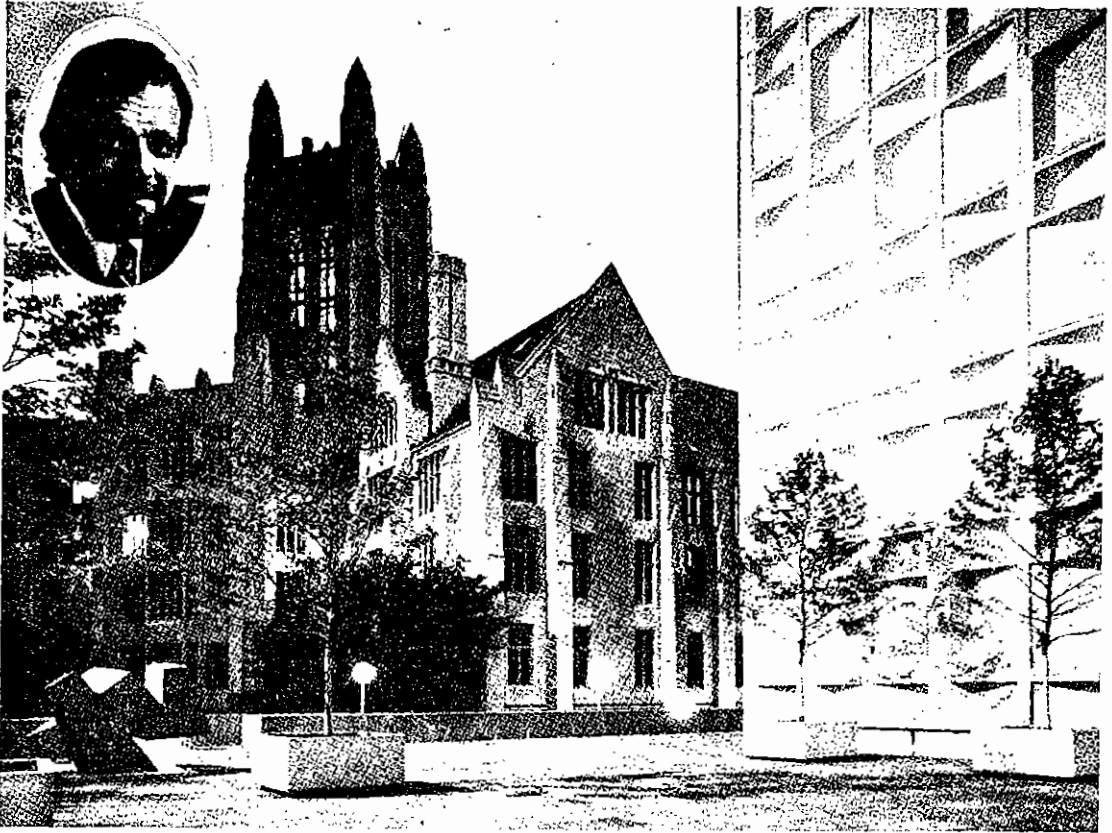
II. 略 史

지금은 우리가 예일大學校라고 알고 있지만 이 大學은 처음부터 예일大學校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바드大學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오래 된 大學이며 하바드보다도 먼저 미국 最初의 博士學位를 수여한 것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튼바 아이비 리그大學이지만 오늘의 예일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곡절이 있었다.

1701年 創設된 지금의 예일大學은 처음에는 세이브르크大學이라고 알려졌었다. 지금의 大學所在地인 뉴 헤이븐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해안선에 위치한 세이브르크라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36年 하바드大學이 세워져자 뉴 헤이븐 주위에도 大學을 세워야겠다는 주장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1701년에 드디어 제임스 피어폰트牧師를 비롯한 뜻 있는 인사들이 세이브르크에 모여 大學設立의 의지를 굳혔다. 예일大學의 創設을 1701년부터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大學이지 실제로는 어설픈 거 짝이 없는 시작이었다. 재산이라야 세이브르크에 모여 創立發足を 결의했던 牧師 몇 사람들이 기증한 40여 권의 책이 전부였고 학생이라고는 제이콥 헤밍웨이라는 젊은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初代學長에는 아브라함 피어슨牧師가 선출되었지만 그는 學長인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敎授였으며 그나마 자신의 敎會 일 때문에 세이브르크로 올 수가 없어 最初이자 唯一한 學生이었던 헤밍웨이가 피어슨牧師가 살고 있던 킬링워드라는 곳에 가야 했던 실정이었다. 지금의 예일大學인 세이브르크大學이 실제로는 킬링워드大學이었던 셈이다.

예일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718年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면서부터였다. 킬링워드에 살고 있던 피어슨初代學長이 사망하자(1707年), 학교가 세이브르크로 이전되었지만 그곳은 깎벌이 많고 바닷바람이 거세어 학생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자, 1716年 드디어 지금의 뉴 헤이븐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새



고장으로 옮겨 오긴 했지만 돈이 없어 校舎 하나
 번번히 짓지 못하는 딱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
 때 나타난 구세주가 뉴 헤이븐출신의 예일이었
 다. 그는 印度에서 무역으로 일약 巨富가 된 후
 은퇴하여 런던에 영주하고 있었는데 예일大學의
 어려운 사정애기를 전해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417권의 책과 國王 조지 1세의 초상화 등 값 나
 가는 물건들을 기증하였다. 이 기증품들에 대한
 공매 결과 562파운드 12실링이 되었다. 지금은
 몇 푼 되지 않는 적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巨金이었는데, 이것으로 최초의 정식교사를 건립
 하였으며 학교명도 그의 이름을 따서 예일大學이
 라고 改名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예일大學은 숭한 시련을 겪어야 했
 다. 1719年 第3代學長에 취임한 커틀러牧師가
 학교를 감리교파 일색으로 만들자 信仰의 自由
 문제로 학교가 파탄의 일보 전까지 물려간 적도
 있었고, 1779년에는 英國軍이 뉴 헤이븐을 侵攻
 하여 校舎와 서류가 몽땅 불에 타 없어질 위기

를 맞았으나 당시 學長이던 에즈라 스타일牧師의
 機智로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하였다.

初期에 예일大學이 치루어야 했던 鴻역은 教
 會와 州政府과의 關係로 集約될 수 있다. 예일
 大學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던 創始者들이 전부
 教會의 牧師(會衆教派)들이었고 大學設立의 큰
 취지 중의 하나도 宗教界의 指導者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예일大學의 設立을 立法化하는 州政
 府의 公告文에도 國家와 教會의 指導者를 훈련시
 키기 위해 이 學校를 세운다고 되어 있다. 그래
 서 그런지 예일大學은 1701년부터 1889년까지의
 198년 동안 13代의 學長 또는 總長(1745年 제 6
 代부터 總長이라고 改稱)이 모두 牧師출신이었
 으며, 189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牧
 師출신이 아닌 사람이 總長(제14代: 아더 헤들
 리)에 취임할 정도로 예일은 教會와 不可分의 關
 係를 갖고 있었다. 졸업생들도 이 기간중에는 많
 은 수가 教會로 진출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牧
 師가 知性界의 代表的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당시 美國의 最高知性層을 형성했었다. 엘리자 워록크牧師(에일, 1733年 卒業)는 다트마우트(Dartmouth)大學의 初代總長이 되었고 새뮤얼 존슨牧師(에일, 1714年 卒業)가 콜럼비아大學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初代學長에 선임되었다. 또한 1706년에는 에일이 배출한 最初의 卒業生 中의 한 사람인 조나산 덕킨슨牧師가 역시 에일 卒業生인 5명의 同僚牧師들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프린스턴大學을 創設했다.

그러나 學校와 教會의 관계 특히 大學이 會衆 敎派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긍정적 기여를 했던 것만은 아니다. 에일의 모든 敎職員과 學生들은 信仰宣誓를 하도록 강요되었으며 學校 教會의 예배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적인 행사로 되었다. 그래서 宗派가 다른 우수한 敎授나 學生이 에일을 外面한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때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學校와 學生들의 對立이 表面化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信仰宣誓는 1823년까지 계속되었고 의무적 예배는 1926년에야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물론 敎를 포함해서 온갖 宗派의 宗教가 있고 教會도 여러 개 존재하여 완전한 信仰의 自由가 보장되고 있지만 그러한 오늘이 있기까지는 실로 많은 迂餘曲折이 있었던 것이다.

州政府와의 關係는 創設初期에 大學이 州政府로부터 약간의 財政的 支援을 받았기 때문에 大學을 보다 강력한 州政府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하여 州政府의 제한을 벗어나려는 學校 당국의 노력이 맞부딪치면서 시작되었던 葛藤의 關係였다. 大學이 開校 62周年을 맞이했던 1763년에는 당시 州總長이 州政府의 영향력 행사에 정면도전, 大學의 自律을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그 다음 30년 동안 州政府로부터 일체의 財政支援이 끊겼던 일도 있었다. 그 후 스타일總長이 다시 州政府와의 關係를 改善, 校舍新築에 필요한 자금을 支援받게 되었고 그 대신 州知事와 副知事 및 6명의 州上院議員들이 大學理事로 運營에 介入하게 되었다.

그러나 大學은 언제나 州政府로부터 가장 적은 대가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으며 州政府는 州政府대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支援을 해 주고 그 대신 大學에 대한 영향력은 極大化

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목표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된 大學과 州政府는 새로운 獨自의 活潑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17年 州政府는 獨自的으로 州立大學을 設置하여 이를 完全한 영향력 아래 두었고 에일은 에일대로 끊어진 州政府의 돈줄에 대신하여 1827年 同窓會를 조직,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모금운동에 대한 同窓들의 호응은 예상외로 적극적이었으며 4년이 채 안된 1831년에 그 유명한 센탐 밀리아基金을 完成했다. 후일 에일의 눈부신 발전이 同窓基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美國 최초로 卒業生의 모금으로 설립된 센탐 밀리아基金은 에일歷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里程碑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州政府의 財政支援이 끊어지고 大學이 官으로부터 完全 自律權을 획득한 지 16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大學의 理事 中에 州知事와 副知事が 自動的으로 포함되고 있다. 물론 州知事와 副知事が 실제 大學運營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지만 이것은 大學과 州政府의 關係가 그만큼 큰 屈曲을 그려왔다는 살아 있는 歷史의 證人이기도 하다.

에일大學이 본격적인 綜合大學으로 發展하기 시작한 것은 1920年代 이후였다. 19세기말 티모시 드와이드總長(13代: 牧師로서는 마지막 總長)때 이미 이름을 에일 유니버시티(Yale University)라고 바꾸었지만 대학원이 고급인력의 양성소로서 제구실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앤젤總長 시절인 1920年代였다.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이 世界의 水準의 敎育機關으로 발돋움한 것도 앤젤總長 때였고 간호대학과 연극대학 등 職業大學院의 發展이 本格化된 것도 모두 1차대전이 끝난 다음의 20年代에 생긴 일이다. 1921년부터 37년까지의 16年동안 總長으로 在職한 제임스 로랜드 앤젤은 우수한 學者인 동시에 有能한 行政家였으며 30年代의 大恐慌 때에도 에일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넘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170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일을 대표해 온 20명의 學長 또는 總長 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를 꼽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다. 2차대전이 끝난 후 에일은 새로운 總長 위트니 그리스월드 박사를 맞았다. 同窓會의 적극적인

모금운동 등에 힘입어 새 總長은 의욕적인 계획들을 하나 둘 추진해 나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에 의뢰해서 건축미가 뛰어난 건물들을 지었으며 核時代에 발맞추어 工科大学의 擴充計劃을 實現시켰다. 그러나 아시아문제, 특히 미국의 對 아시아 政策에 관한 世界的 權威이기도 했던 그리스월드박사는 월남전쟁이 막 시작되던 1963年 癌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 온 키팅만 부르스터박사(당시 學僚長)가 14代 總長에 취임했다. 예일大學의 상징인 불독(bulldog)처럼 생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는 불독總長으로 더 잘 알려진 부르스터總長은 강인한 의지와 대학교육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反戰데모와 黑人들의 民權運動 및 흑표범과 같은 일부 過激派 學生團體들이 풍미하던 60년대와 70년대를 무사히 넘겼다. 그는 또한 예일이 世界的 教育機關으로서 그 명성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財政資源이 필요하다고 판단, 75년에는 3억 5천만달러의 모금을 목표로 하는 「예일 캠페인」을 전개, 2년 후 자신이 駐英大使에 임명되어 總長職을 사임할 때까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눈부신 실적을 올렸다.

부르스터總長이 떠난 후 그 職務代理로서 일년간 예일大學校의 살림살이를 도맡다가 후임 지아마티박사에게 總長室 열쇠를 물려주고 자신은 시카고大學의 總長으로 자리를 옮긴 한나 홀본 그레이 박사는 有名大學의 總長을 지내는 最初의 女性教育者로서 유명할 뿐 아니라 부르스터總長에서 現 지아마티總長으로 이어가는 大學行政의 過渡期를 성공적으로 넘긴 것으로 더 알려져 있다. 勞使紛糾과 外部支援金의 減少, 經常費의 引上 등 어려운 일들이 무척 많았으나 女性다운 자상함과 인내심으로 이를 모두 잘 해결해냈다.

現 지아마티 總長은 부르스터 前任總長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부르스터박사가 學校行政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教育界와 知性人層을 대표해서 政府의 귀에 거슬리는 發言을 서슴지 않았던 「巨物級」 總長이었다면 新任 지아마티박사는 大學

總長은 行政家이지 政治家나 社會評論家는 아니라는 信念으로 學校가 당면한 문제를 소리없이 처리하는 「內實型」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激動期였던 자신의 在任期間에 걸맞게 부르스터總長이 지극히 進步的이며 自由放任主義的 教育哲學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요란하게 實踐했고 그래서 保守主義的 教育觀을 갖고 있는 돈 많은 同窓들이 學校와 발을 끊다시피 하는 사태마저 생겼음에 비해, 지아마티總長은 세계적 英文學者로서 평생 學校 울타리를 떠나본 일이 없는 사람답게 保守主義的 教育觀을 견지하여 學校밖에 모른다. 부르스터總長이 辭意를 表明하고 2년 동안 後任 總長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예일大學의 理事들이 찾았던 人物이 바로 지아마티 같은 內實型이었다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예일은 이제 착실한 內的 成長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하바드大學은 學生들이 꾸러가고 프린스턴大學은 總長이 꾸러가며 예일大學은 教授가 꾸러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教授가 總長이 되어 예일을 끌어가는 새로운 歷史 속에서 오늘의 예일은 그 담쟁이 덩굴의 傳統과 權威를 새롭게 하고 있다.

Ⅲ. 教育目標와 現況

初創期 예일의 教育內容은 유럽의 傳統을 그대로 이어받아 論理學, 修辭學, 文法(회합어, 라틴어 및 히브리語), 數學, 天文學 등 6개 科目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教會의 영향이 강했던 初創期에도 예일의 教育은 끊임없는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創造的 知性的 배출을 最高의 目標로 삼았으며 이러한 目標을 위해서는 教養科目에 最優先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1828年 제레미어 데이總長 재직시 예일大學은 教授全體의 이름으로 「教科目에 關한 報告書」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19세기 미국의 모든 대학들의 教科目編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일의 教育目標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大學의 目標가 高等教育의 基礎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大學教育이 學生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才能과 素質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을 비롯한 學校의 모든 教育施設들이 이를 위해 機能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人間을 最高의 知性으로 만드는 것은 人間 스스로의 努力에 의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大學教育도 學生 스스로가 자신의 啓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일 教育의 最優先은 學生들을 特定의 技能人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創造하는 方法과 能力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教育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예일의 教科課程은 다른 어느 大學보다도 教養教育을 강조하고 있으며 學生들이 폭 넓은 選擇을 할 수 있도록 多様な 教科科目을 編成하고 있다. 대부분의 大學들이 大學 1學年 동안 教養科目을 택하게 하고 2學年부터 專攻科目의 履修을 要求하고 있지만 예일에서는 2學年 때까지 教養科目을 들도록 되어 있다. 自然科學을 專攻하는 學生 中에서 一部는 教授의 승인을 받아 2學年 때부터 바로 專攻科目을 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4年 間의 全 大學教育期間 中 실제 3분의 2에 가까운 시간을 폭 넓은 教養科目의 履修에 投入하고 있다. 學士學位를 받기 위해 택해야 할 科目은 36개이며 이 중 14개만 전공분야의 과목들이다. 科目負擔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어서 每學期當 平均 4科目만 들으면 된다. 大學教育이 강의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그 目的이 달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傳授되는 지식은 學生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 하나의 媒介가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教養科目은 4개의 分野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분야가 語學과 文學이고 제 2분야가 歷史와 哲學 등 人文科學, 제 3분야가 社會科學, 그리고 제 4분야가 自然科學이다. 이들 4개 분야 중에서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적어도 12개 科目 이상을 선택해야 하고 각 분야에서 최소 2개, 최고 6개의 科目을 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教養科目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자신의 專攻分野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6科目씩 도합 18개 科目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18개 科目을 전공분야에서 택할 수 있다. 여기서 전공분야라고 하지만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아주 넓은 의미의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專攻教養科目에 해당하는 科目을 6개나 더 들게 되어 있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정치학과에서 지정하는 專攻科目 12개 外 6개 科目은 사회학이나 경제학 또는 심리학 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예일의 教育이 固定概念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創造的 知識人의 양성에 注力하고 있는 만큼 制度化된 教科科目이나 專攻分野에만 學生들을 붙들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教科科目에 收錄되지 않은 새로운 專攻科目을 택하거나 2개 이상의 既存專攻科目을 統合, 하나로 하는 데 대해 예일은 다른 어느 大學보다도 관대하다. 바로 이것이 항상 새로운 것을 追求하고 未知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備하는 人材를 길러 내 온 예일 教育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